

## 증권 디지털


**KB증권**  
 일임형 랩 '에이블 어카운트'  
 열달 만에 잔고 5천억 돌파

KB증권은 지난 해 7월 선보인 일임형 랩어카운트 'KB 에이블 어카운트(able Account)'가 출시 열 달 만에 잔고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KB able Account'의 잔고는 연초 약 2400억원에서 지난 3월 3000억원, 4월에는 4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로서는 업계 최저 수준인 1천만원의 최소가입금액, 양호한 수익률, 고객별 맞춤형 상품제공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KB able Account'는 국내투자형, 글로벌투자형 및 펀드투자형의 기본 포트폴리오 외에 고객 성향별 자산배분형 11개 포트폴리오 등 총 22개의 세부적인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고객 맞춤형 상품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문호 기자


**하나금융투자**  
 파생결합상품 총 3종 모집

하나금융투자는 11일까지 다양한 기초 자산을 활용한 리자드 DLS 등 파생결합 상품 총 3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원유(WTI), 홍콩지수(HSCEI), 유럽 지수(EuroSTOXX50)를 기초자산으로 연6.8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 투자 DLS 2649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1.5년이고 6개월마다 총 3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홍콩지수(HSCEI), 유럽지수(EuroSTOXX50), 일본지수(NIKKEI 225)를 기초자산으로 연5.4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8443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김문호 기자

## 한국투자증권

## 멀티 리자드형 ELS 공모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1일까지 홍콩지수(HSCEI), S&P500, 니케이225(NIKKEI 225)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멀티 리자드형 'TRUE ELS 10337회'를 총 10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6개월 단위 스텝다운 구조로 6개월마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90%(6·12개월), 85%(18·24개월), 80%(30개월) 이상이면 조기상환된다. 또한 리자드옵션에 따라 설정 이후 6개월간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 85% 미만, 또는 설정 이후 12개월간 8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연 10.0%의 더 높은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 된다. /김문호 기자

# '태양광'서 경영 능력 입증 DK에 힘실어주는 김승연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한화그룹 회장)

## 2018 기업 지배구조 개편

## ⑦ 한화

한화,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그룹 총수가 된 김승연 회장은 '신용과 의리'를 바탕으로 통 큰 인수합병(M&A)으로 한화그룹을 키워냈다. 하지만 그에게도 큰 숙제가 있다. 이제는 그룹의 미래와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둬야 할 때가 됐다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특히 3세 경영 승계는 점차 풀어야 할 숙제다. 김 회장의 두 아들인 김동관, 김동원씨는 이미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 이들은 각각 한화큐셀, 한화생명에서 일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과 금융중심의 그룹 체질 개선도 과제다.

김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물을 끓게 하는 100도와 99도를 결정짓는 것은 단 1도 차이"라며 "포기하지 않는 1도의 혁신이 개인과 조직, 회사의 잠재 역량을 최고치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한화 임직원들에게 미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그룹의 소프트파워 경쟁력도 일류수준으로 혁신해 나가자"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승부는 결국 인재경쟁으로, 오늘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 확보와 인재양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관에 무게 실린 '한화'

김 회장은 두 번의 통큰 배팅을 한다. 2002년 대한생명 인수가 첫 번째다. 그는 보험업을 주력사업으로 추가하며 석유화학·유통·레저에 이어 '금융'이라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달았다. "젊은 최고경영자(CEO)가 얼마나 버티겠어"라는 우려를 단번에 씻어냈다.

대한생명을 인수해 재계 10위권에 진입



한지 12년 만인 2015년 또 한 번 일을 냈다. 삼성그룹과의 빅딜로 삼성테크윈, 삼성종합화학 등 자산 규모 17조원에 달하는 삼성 계열사 4곳을 인수합병한다. 2015년 4분기 적자를 기록했던 한화테크윈은 지난해 829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2014년 한화그룹의 자산규모는 123조 원에서 지난해 3분기 160조원대로 30% 가량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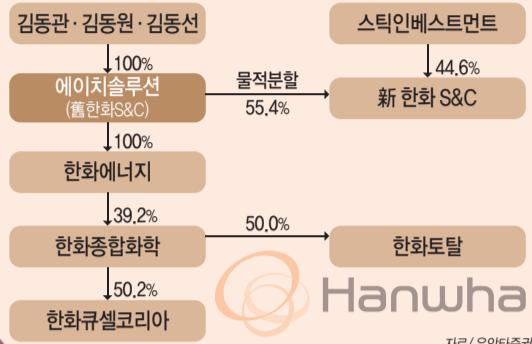
그룹의 큰 들은 완성됐다는 게 그룹 안팎의 시각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경영권 승계다.

장남인 김동관 전무가 단연 1순위 후계자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그룹 내 김 전무 평판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뛰어난 경영 능력이 첫손에 꼽힌다. 김 전무는 만년 적자에 시달리던 태양광 사업의 터어라운드를 이끌어낸 주인공이다. 2012년 독일 태양광 기업 '큐셀' 인수를 주도했고, 한화솔라원과 한화큐셀의 합병을 진두지휘했다. 한화큐셀이 처음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한 시기도 김 전무가 한화큐셀로 자리를 옮긴 시점과 맞물린다.

한화큐셀의 대주주인 한화케미칼 연결실적(태양광 부문)을 기준으로 한화큐셀은 1분기 119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한국산

## 한화 S&amp;C 지배구조 현황



자료/ 유안타증권



금융중심의 그룹체질개선 과제  
'일감 몰아주기' 대책 마련 '골몰'  
투명성 위해 한화S&C 상장 검토

태양광 모듈에 30%의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오히려 실적이 개선됐다. 한화큐셀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그룹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김 전무는 삼성과 한화의 '깜짝 빅딜'에서도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의 의중도 김 전무에게 실리는 분위기다. 한화종합화학은 지난 2016년 한화큐셀코리아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지분 50.2%)에 올랐다. 재계 관계자는 "세 아들, 특히 장남인 김 전무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김 회장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해석한다. 한화종합화학은 현재 한화의 화학 계열사 중 가장 일자로 불리는 한화토탈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은 한화솔라원과 한화큐셀을

합병한 뒤 "태양광 사업을 계속 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분구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더 확실하다. 세 형제는 한화S&C(김동관 50%, 김동원·김동선(각 25%) )가 100% 지분을 들고 있는 한화에너지(39.2%)를 통해 한화종합화학을, 또 한화토탈과 한화큐셀코리아를 지배한다.

◆한화 S&C, 일감 몰아주기 해소 묵수 나올까

승계와는 별도로 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시장의 관심이다.

한화그룹의 아킬레스건인 한화S&C 처리문제가 핵심이다. 한화그룹은 지난 해 8월 당시 3형제가 보유한 한화S&C 지분 44.6%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어 한화S&C를 H솔루션과 물적분할하면서 실제로 한화S&C 지분 45%를 처분했다. 하지만 H솔루션은 여전히 김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피하기 위한 퀼수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화S&C의 다른 자회사들도 계열사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간접적'인 일감 몰아주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화S&C의 100% 종속법인인 휴먼파워(IT 서비스), 드림플러스 프로덕션(소프트웨어 개발), 드림플러스 아시아(금융투자기관)의 크고 작은 매출은 전부 내부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100% 종속기업인 한화에너지도 내부 거래 비율이 39%로 높다. 그 아래 100% 자회사인 에스아이티(컴퓨터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역시 2016년 55억 원 매출 모두 계열사로부터 나왔다.

공정위는 한화그룹 세 형제가 여전히 한화S&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화S&C 매각이 바람직한 구조 개선인지, 사익편취 규제 회피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밝히며 한화를 압박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한화S&C의 상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공개(IPO)를 통해 한화S&C를 상장해 에이치솔루션 지분율을 떨어뜨리고 동시에 공시 등을 통해 지배구조에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청약불패·집값 상승... 영등포 뉴타운 '후끈'

 1년 새 아파트 매매값 최대 3억 ↑  
 브랜드 단지 공급·교통호재 견인

서울 영등포구 뉴타운 개발호재가 주변 아파트 시세를 끌어 올리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진행된 브랜드 아파트 단지 공급과 신안산선 추진 등이 상승 배경으로 꼽힌다.

9일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영등포 뉴타운과 신길뉴타운 일대 아파트는 최근 1년 동안 가격이 수직상승했다. 영등포동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3월  $48.4\text{m}^2$ 당 484만원에서 지난 4월 644만원으로 올랐다. 신길동은 459만원에서 올해 606만원으로 상승했다.

영등포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영등포 삼화아파트의 경우 전용  $59\text{m}^2$  매매가격이 6억3000만원,  $84\text{m}^2$  6억9000만원~7억3000만원, 영등포 푸르지오아파트는  $79\text{m}^2$ 가 현재 6억9000만원, '아크로타워스퀘어'는  $115\text{m}^2$ 가 13억원이다"며 "지난해 보다 1억~2억 가량 상승했다"고 전했다.

과거 영등포구는 주거지역보다 공장밀집지역이란 이미지가 강했다. 공장 외에



지난해 10월 분양한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분양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도 노후주택과 쪽방촌, 집장촌이 많았다.

하지만 이 일대는 지난 2003년과 2006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각각 영등포 뉴타운과 신길뉴타운이 지정되며 변화가 시작됐다. 영등포뉴타운은 주상복합 시설 위주로 개발된다. 영등포 2가, 5가, 7가 일대 14만4000m<sup>2</sup> 규모다. 지난해에는 1~3구역에 들어서는 '영등포뉴타운 한화꿈에그린'이 공급돼 완판을 기록했다.

신길동 236번지에 위치한 신길뉴타운은 주거지형으로 조성된다. 약 99만 m<sup>2</sup> 규모다. 지난 2008년 '신길뉴타운 한화꿈에그린', 2017년 '레미안에스티움' 등이 입주했고, 신길 12구역에 들어서는 '신길센트럴자이'는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신길 8구역에 들어서는 '신길 파크자이'는 이달 분양을 시작한다.

신길동의 한 중개업자는 "신길자이 아파트 전용  $59\text{m}^2$ 의 매매가는 현재 6억 3000만원, '신길뉴타운 한화꿈에그린'은  $84\text{m}^2$ 가 8억, '레미안에스티움'  $84\text{m}^2$ 는 9억5000만원이다"며 "지난해보다 2억~3억원 정도 오른 가격"이라고 말했다.

신길뉴타운은 신안산선 호재와 신림선 도시철도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다. 신길뉴타운에는 신안산선이 지나는 도림사거리역과 신풍역이 오는 2023년 개통된다. 지하철 7호선이 지나는 신풍역에서는 신안산선과의 환승이 가능하다. /정연우 기자 ywj964@

LH 전세임대주택 2100호 취준생·대학생 등에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전세 임대 3순위자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2100호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 전세임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다.

이번 공급물량인 2100호는 현재 수시 접수 중인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청년 전세임대 1·2순위자와 별도로 3순위자에게 단독으로 공급한다.

자격요건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4인 기준 584만6903원/월)인 자로서 타지역 출신 대학생이거나 고등학교 및 대학을 졸업(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이면 청년 전세임대 3순위에 해당돼 이번 공고에 신청 가능하다.

전용면적 60m<sup>2</sup>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원가능 금액은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500만원,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200만원과 월임대료로 지원액의 2~3%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최장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정연우 기자